

□경희대 교직원 사회봉사단 '나누리'

멋적은 미소에 담긴 진실한 사랑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에 익숙하다. 때론 주기도 하고 때론 받는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한번쯤은 품어 보았으리라. 그러나 까맣게 잊어버린 사랑엔 그리 익숙하지 못하다. 마음만이 아닌, 몸소 실천하는 사랑이라면 좀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맹목적인 사랑을 어려운 아들에게 주고자 모인 단체가 있다. 바로 교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나누리'이다. <편집자>

우리 선조들에겐 '봉사'라는 개념이 필요없었을 것 같아요. 이웃이 어려울 때면 서로 나서서 도와주는 '두레'나 '품앗이' 등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서로 정을 나누는 거죠

"물"에다가 그냥 참버섯 따서 버렸더니 허부적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지난 8월 장애인들과 함께 여름캠프를 다녀온 남성우씨의 말이다. 혼자선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그야말로 '물맛'을 보게 하기 위해 여럿이 힘을 모아 한사람씩 해변에 들어가게 도와줬더니 기뻐하는 모습들이 갓난아기처럼 아름다웠다는 것이다. 혼자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식사를 할 때 입보다 웃으로 가는 음식이 더 많은 사람들, 덜덜덜 떨리는 손을 따스하게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



▲장애인은 더이상 소외되지 않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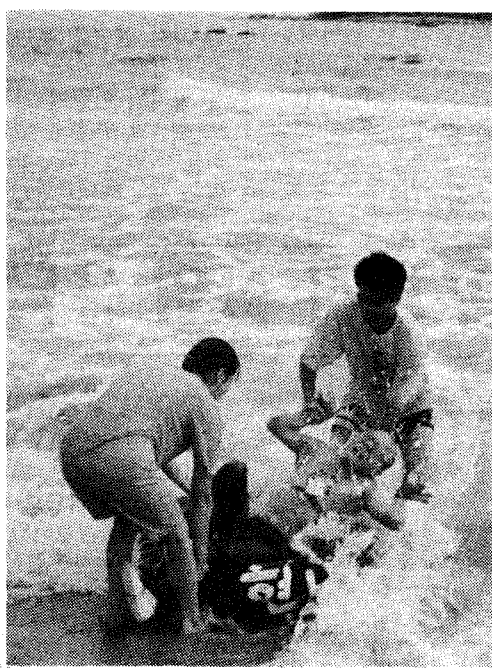
다. 사실 장애인들,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단지 좀 더 열악한 육체적 혹은 경제적 환경에 처해있을 뿐.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하나 모이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몸소 사랑을 베풀기 위해 모인 단체가 있다. 바로 우리학교 교직원들이 모여서 작년 12월에 결성한 사회봉사단 '나누리'가 그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남성우씨는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사회봉사단 '나누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처음엔 도대체 '누구를 도와야 할지, 무엇을 도와야 할지'조차 막막했다고 한다. 학내 봉사동아리, 각 구청 사회복지과, 여러 수용시설들을 돌아다니며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자신들이 돕기에 적합한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원이 관리, 환경, 기능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고, 더욱이 사회봉사를 핑계로 구좌를 개설하곤 사리를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구좌입금등의 방법보단 직접 나서서 몸으로 돕고 싶었다. "저희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못본 척 할 수는 없잖아요."라며 멋지게 웃고 마는 남성우씨.

그러다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C.B.R 센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 사회심리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열악한 조건의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이곳 C.B.R 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틈틈히 시간이 나는대로 장애인들을 만나 말벗이 되어주고, 외출이나 운동보조 등도 돕게 되었다.

'뿌듯하지만 몽글하다'는 것이 장애인을 직접 접한 회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남성우씨는 그중에도 지난 6월에 다녀온 소풍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장애인들과 함께



풍선터뜨리기게임을 했는데 꼬챙이를 대기만 해도 터지는 풍선을 앞에 두고도 상반신이 불편해서 온힘을 다해야 하는 장애인들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파 왔다.

현재 재가장애인들과 결연을 맺은 회원은 5명. 남성우씨도 물론 결연을 맺은 상태. 실평 6평 정도의 좁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박정우씨와의 만남이다. 박정우씨는 항상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복도 끝까지 마중을 나온다. 시간이 지나 헤어질 시간이면 아쉬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새 정이 들어 친한 친구가 되어버렸다. 바둑동호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남성우씨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틈나는 대로 바둑을 가르쳐 준다. 매번 찾아갈 때마다 바둑실력이 훌쩍 느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쁘다고 한다.

아직 봉사활동을 시작하지 일년도 되지 않

교직원 사회봉사단 '나누리'는 작년 12월에 처음 결성된 이래 현재 원광복지관과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사진은 8월 여름 캠프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를 하는 모습이고, 옆사진은 동해안에서 함께 물놀이를 할 때의 장면이다.

있지만 자신의 짧은 경험에 비춰 보면 장애인을 돕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남성우씨는 말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목욕탕 때 밀이를 하시는분은 매주 수요일 쉬는 날이 되면 차량봉사를 하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면 운전을 해주는 거죠. 또, 언젠가는 시각장애인이 봉사를 하러 온 걸 본 적도 있어요. 오히려 봉사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봉사를 하러 온거죠. 후천적 장애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봉사를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나누리' 회원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친구도 되어주고, 간단한 개보수 공사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의료나 교육 등에 있어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장애인의 경우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학내구성원들, 특히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에겐 '봉사'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두레나 품앗이등을 통해 이웃이 어려우면 서로 상부상조 했었잖아요. 봉사라는 이름없이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해왔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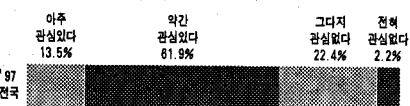
오늘날 너무나 각박해져가는 세상이 안타깝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살자는 말을 남기는 그의 얼굴에서 소박한 사랑의 실천이 느껴지는 듯하다.

<최용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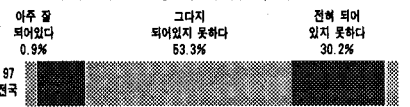
□ 장애인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다음은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12일간)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중 일부이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1%(95% 신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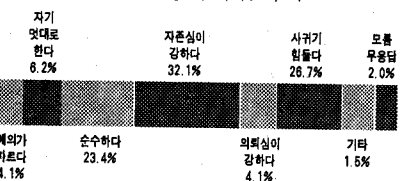
1. 장애인 및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
1. 평소 장애인 문제에 관해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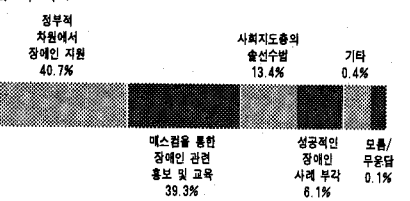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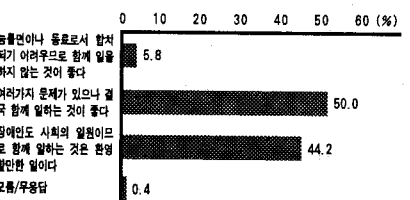
3.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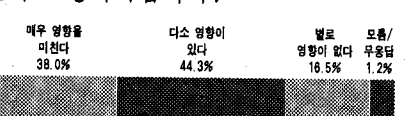
4.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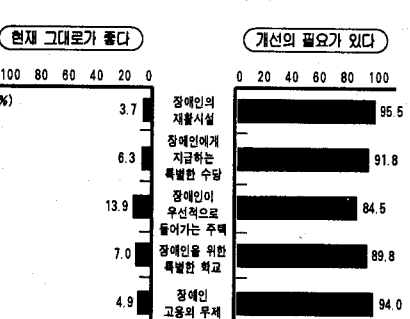
2. 장애인에 대한 경험 및 태도
1.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2. 장애인을 빙자한 구걸 행위가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책
1. 다음 장애인 복지제도는 '현재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8학년도 원아 모집 및 심리검사

유아 창의성 교실

당신의 자녀를 미래의 창의적인 지도자로 기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발하고 독특한 질문으로 선생님과 부모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아이, 과제 집착력이 강하여 어떤 일에 몰두하면 딴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 사회성이 부족하여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이러한 아동에게 저마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 대상 : 만 5세 유아로서 본 프로그램 실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유치반 : 경희 유치원 원아 6명
- 토요반 : 외부 유치원 원아로서 유치원 원장님의 추천을 받은 아동 6명
- 교사 :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교사와 유아의 비율이 1.5~2:1

심리검사 안내

현대의 아동 및 부모를 위하여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심리적, 교육적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아동 연구실 심리검사부에서는 검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검사자들이 타당도, 신뢰도가 높은 심리검사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석, 상담하고 있습니다.

검사명	대상연령
K-ABC (카본-ABC 지능검사)	만 2세6개월~12세6개월
KEDI-WISC (웨슬러 아동지능검사)	만 5세~15세
K-WPPSI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만 3세~7세
MBTI (성격유형검사)	성인(부모)
MMTIC (성격유형검사)	아동 및 청소년(자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본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며, 올바른 생활 습관 및 학습 태도의 형성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시키며, 나아가 가족 전체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대상 : 경희초등학교 1학년 재학아동 12명
- 1순위 : 경희대학교 교직원, 대학원생, 의료원 직원 자녀
- 2순위 : 일반 취업도 자녀
- 3순위 : 일반가정의 자녀
- 프로그램 실시 시간 : 월, 수, 금 오후 2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 교사 : 책임 교사 1인(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특별 활동 교사 3인(표현활동, 탐구활동 전문교사)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연구실
(961-0352)